

 경기도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정기우품이





7 시라적기는 가죽공예 맥을 이어기는...

가죽공예 구 연 회

가죽공예... 이름조차도 너무나 생소한 가죽공예에 한 평생을 쏟은 장인이 있다. 안성시에서 가죽공예를 하고 있는 구연희씨. 그 만큼 가죽공예에 미진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25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죽과 씨름하며 걸어온 길. 한때 가죽공예가 붐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수작업으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존재가 돼 버렸다. 손쉽게 대량생산되는 다른 제품들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느끼는 그이기에 가죽공예를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나 고맙다고 한다.



찾아가는 길

- 위치 :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615
- 대중교통
안성터미널 ⇨ 죽산리행 버스 ⇨ 죽산리
※ 번호가 없는 죽산리행 버스입니다..
-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음성IC) ⇨ 82번지방도로 ⇨ 17번국도
-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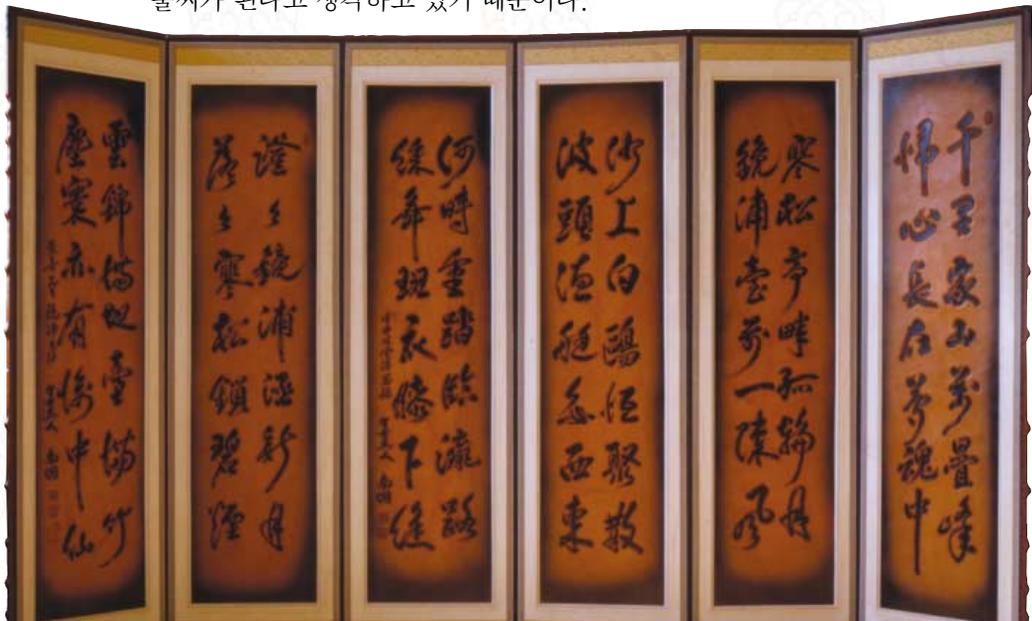


한평생 가족공예에 혼을 쏟은

가족공예란 가공처리하여 소가족을 자르고 염색해서 실생활품과 장식용품을 만드는 공예이다. 가족공예는 무한한 창조작업이라 만듦 때마다 새로운 묘미를 느낀다고 한다.

가족공예 작품들은 소가족의 부드럽고 질긴 습성을 이용해 제작하기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가 높다. 또한 오래 사용할수록 뛰어난 천연 광택과 질감이 표현되고 손때가 묻어나 더욱더 복고적으로 변한다. 마치 어릴적 친구처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은은한 색을 드러내고, 더욱 아름다운 광택이 난다. 일반적인 공예품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능을 상실하고 광택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족공예는 그렇지 않다. 은은한 광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두고 보아도 그대로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들을 둘러보면 독창적이면서도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확연하게 보인다. 어느것 하나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선이 굵은 부분과 세심하게 배려를 한듯한 모습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의 작품세계에 빠져들게 되면 아름다움에 매료되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추구하는 작품의 세계라고 말한다. 누구나가 공감할수 있는 작품세계. 이것이야말로 희박해져 가는 가족공예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죽공예의 르네상스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죽 공예품으로는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A.D 5세기 말경으로 추측되는 천마도장니를 들 수 있다.

천마도장니는 보통 천마도라고 불리워지는 말의 양쪽 배를 가리는 가리개로, 고운 자작나무 껍질을 여러 겹으로 누빈 위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능숙한 솜씨로 그려 넣고 가장 자리에 가죽 대어 만들었는데 그 이후 부터는 가죽신이나 악기 혹은 갑옷 등에 가죽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죽 제품들은 대부분의 중국으로부터 전해 받은 기술이 일본에 귀화한 사람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 근세에 이르러서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서양의 가죽 제조법을 받아들여 연구 개발함으로써, 섬세하고 간결한 기법을 창안하여 현대의 가죽 공예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30여전부터 본인만의 독창적인 가죽작품을 개발·연구 하고 있는 구연희씨는 소가죽에 그림이나 글씨를 마음대로 조각하여 병풍, 족자, 생활용품 등의 작품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작업실 한편에 놓인 작업대 위에는 크고 작은 공구들, 가죽을 자르고 구멍 뚫고 조각하고 무늬를 내는데 쓰이는 것들이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수십년간을 장인정신의 맥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오늘까지 버텼다 구연희씨는 지금 이순간에도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술적 감각을 작품에 맘껏 표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젠 가죽공예에 대해 평가해 주는 사람도 드물다. 구연희씨가 가장 아쉬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국내 유일의 가죽공예가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가죽공예를 자기마저 외면해 버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오늘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하는 구연희씨를 보면서 다시 다가올 가죽공예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기대해본다. 물론 기다린다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르네상스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도 밤낮으로 창조적인 작품세계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

가죽이 살아 숨쉬는 것 같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전통적이며 고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현대적 세련됨이 물씬 풍긴다. 전통의 틀을 현대감각에 맞춰 현대인들이 좋아할만한 여러 가지를 가미했다는 그의 설명에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소가죽에 글씨를 새겨서 만든 병풍을 방에 가져다 놓으면 마치 옛날 대가집 안방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새로운 작품에 몰두했을 때는 자신과 싸우는 인고의 작업을 거쳐 독창적인 작품을 탄생시키지만 그때가 가장 차분하고 정신이 집중된 안정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런 그를 보면 각박한 세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 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직 가죽공예를 알아주는 사람도 관심의 폭도 적지만, 구연희씨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때 우리는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할것이다.

가시밭길을 오로지 장인정신으로 버텨온 구연희씨, 그의 가죽공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야 말로 독창적인 작품활동을 하는데 크나큰 디딤돌이 되어 주리라고 믿는다.

